

#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 출범

### 기술공급기업 20여개사 참여... 제조 AX 생태계 활성화 기대

전북지역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들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들로 구성된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가 지난 5일 광주에서 호남권 공동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서울·인천권과 경기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권역별 행사로,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제주지역 기술공급기업과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와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사례 공유, 최신 AX 트렌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 협의체인 스마트제조기술협의회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된다. 생산관리시스템 전문기업 블루비즈의 김용현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도내 기술공급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사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신 AX 기술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기술공급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는 지역 제조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협의회가 목표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신 AX 기술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기술공급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는 지역 제조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협의회가 목표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4일 전주 예수병원과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건강검진 지정병원 '맞손'

###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예수병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예수병원이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4일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과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예수병원은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우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지

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건설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문건설 가족들의 건강은 건설산업과 지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 복지 향상을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지원

###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창업아카데미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 열고 우수기업 5개사 선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를 열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5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12명이다.

참가자들은 창업 교육과 그룹·개별 멘토링, 현장실습 등을 통해 고도화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를 개최했다.

며, 교육 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받았다.

올해 창업아카데미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자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장 진출 전략, 마케팅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산업 트렌드

분석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멘토링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등 본격적인 사업화 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평가회는 교육생들이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북의 해양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과 후속 연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추진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 특허,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 분야와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특장차,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라이프케어 분야 기업이다.

신청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인증·성능시험·분석,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R&D 연계지원과 수요맞춤형 지원, 컨설팅, 사전기획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을 위해 사업 유형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최종 평가 결과물 검수 후 수혜기업에 지급된다. 기업 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신청은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R&D 연계지원과 컨설팅은 지역혁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맞춤형 지원과 사전기획은 전북IP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사전 검토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7월 10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규택 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 특허, 온라인 마케팅까지 기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사업"이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전북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메가시티 추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기업의 전북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소재한 태양광, 풍력, ESS,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 제품화(상용화) 지원과 경진원이 담당하는 마케팅·판로개척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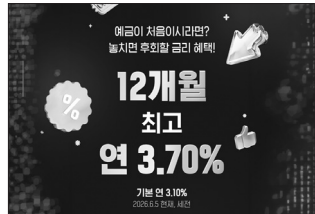
윤여봉 원장은 "경진원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내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화와 스케일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이 정기예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7%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JB 1·2·3 정기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7%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금리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본금리 연 3.10%에 우대금리 최대 0.6%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1년간 전북은행 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에게 0.5%포인트,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복잡한 거래 실적이나 추가 금융상품 가입 조건 없이 첫 거래 여부



와 마케팅 동의만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JB 1·2·3 정기예금'은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한도는 없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고객이나 만기 예금 재예치를 고려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